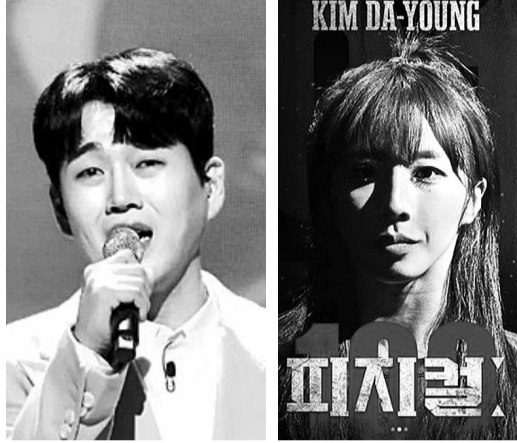


예능 발목 잡는 '출연자 논란'

'불타는 트롯맨' 우승 후보 황영웅 '피지컬:100' 출연 김다영 등 3명 학폭·폭행·협박 이력이 줄줄이 하차 일반인 출연자도 도덕·윤리성 요구 검증 강화하고 방송 책임감 필요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피지컬:100' 김다영

오디션, 서바이벌, 연예 등 일반인이 출연하는 예능에서 폭행 등 출연자를 둘러싼 논란이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오디션을 필두로 한 일반인 출연 예능은 신선한 인물들이 절실한 목표를 향한 날것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연예인과 달리 과거 행적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일반인 출연자는 과거사나 지인과의 분쟁, 사생활 등이 방송 중이나 이후에 폭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프로그램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황영웅은 과거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또 다른 폭행 의혹이 계속 이어지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에 따라 '불타는 트롯맨'은 '톱8'이 아닌 '톱7'이 최종 경연을 벌이게 됐다. 황영웅의 하차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프로그램 평판도 직격탄을 맞았고, 결승 1차전 1위였던 황영웅이 빠지면

서 오디션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도 출연자 3명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기에 제동이 걸렸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출연자 김다영은 학창 시절 후배들에게 폭언한 것은 맞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출연자는 지난달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잡혔다. 또 다른 출연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논란만이 아니다. ENA 연예 예능 '나는 솔로'에서는 남성 출연자로부터 성병이 걸렸다는 전연인의 폭로가 인터넷을 달궜다.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해명에 전 연인이 성병 검사 결과

를 추가 공개하면서 논란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 예능에 출연했던 일반인 가운데는 셸럽(유명인)으로 거드름을 치는 경우가 많다. 팬들이 생겨 팬미팅을 하기도 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본업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구경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TV,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활동한다면 그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준(準)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도 이런 사회 인식을 알고 있기에 섭외 단계에서 출연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당사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불타는 트롯맨', '피지컬:100' 제작진 역시 논란이인 출연자 개인의 세세한 과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출연자가 진실하게 검증을 받으려며 방송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며 "과거를 속이고 방송에 나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 등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진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을 파헤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로 향후 비슷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조승우 '능청과 냉철 사이'

드라마 '신성한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 변신... 첫 방 시청률 7.3%

배우 조승우가 JTBC 새 주말드라마 '신성한 이혼(사진)'에서 특유의 능청스러운 매력을 마음껏 분출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신성한 이혼' 첫 회 시청률은 7.3%(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첫 회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섹시 가이'라 칭하고, 괴상한 몸짓으로 리듬을 타며 트로트를 열창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성한(조승우 분)의 잔광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신성한을 찾아온 의뢰인은 세상을 들쭉이게 할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인 라디오 DJ 이서진(한혜진)이었다. 양육권 하나만 원한다는 이서진의 진심이 신성한은 사건을 수락했고,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다.

'신성한 이혼'은 첫 회부터 속도감 있게 극을 전개했다. 불륜, 성관계 동영상 등 다소 자극적인 소재들을 깔고 들어왔지만, 의처증, 가정폭력, 성범죄 2차 가해 등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다뤘다.

무엇보다 배우들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 만든 캐릭터들이 극의 재미를 살렸다.

조승우는 능청스러움과 냉철함을 오가며 인간미 넘치면서 믿음직한 변호사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다만 '천원짜리 변호사' 등 최근 법정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괴짜' 변호사와 캐릭터가 겹쳐 기시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다. 차별점을 준 것은 30년지기 친구인 장형근(김성균)과 조정식(정문성)이다. 신성한-장형근-조정식 세 사람의 만남 때마다 서로를 구박하는 '찐찐'(진짜 친구) 호흡으로 브로맨스를 살렸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7일-7월9일) 입장권이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으로 등록되었으며, 기부자들은 사전 판매가 종료되는 공식 개막일인 4월 7일 이후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 10만원으로 제공되는 답례품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어른 2장과 어린이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부자들은 3만 포인트로 제공받을 수 있다. 4월 6일까지 판매되는 예매 입장권은 어른 1만 2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광주시 이외의 개인이 광주시로 기부를 하고 이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입장권을 선택 구매할 수 있다. 기부자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의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찬회 개최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3일 제10회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찬회(사진)를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송진희 원장, 광주시청 담당부서를 비롯한 총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찬회는 지난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바탕으로 향후 업무추진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또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 및 촘촘히 홍보 방안을 위한 내부 직원들의 의견 교환의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 제10회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개최된다. 입장권은 현재 네이버, 티켓링크에서 예매중이며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통합입장권과 광주시민 우대할인권도 도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도슨트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이를 일컬어 도슨트라 한다. 최근 도슨트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도슨트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ACC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며 25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12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서류양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이론교육을 비롯해 해설 대본 작성법, 아시아문화 이해, ACC 소장품 이해와 활용, 전시해설 실습 등 모두 12회로 구성돼 있다. 12주 교육 후 우수자에게는 ACC 도슨트(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교육 참여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15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